

중국 변호사가 본 파룬궁수련생

[밍후이왕] 중국공산당 장쩌민 정치 강패집단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지 18 년째가 된다. 18 년 동안 파룬궁수련생들의 반박해, 거짓말 폭로, 진상 알리기를 통해 중국공산당 거짓말에 속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진상을 아는 사람들로 됐다. 파룬궁 진상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신앙, 법률, 인권적으로 이번 박해가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겼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진정하고 깊이 있게 파룬궁수련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한 변호사들이다.

“이는 얼마나 자비로운 홍금인가!”



텐진 파룬궁수련생 저우상양, 리산산부부

2016 년 9 월 13 일 텐진 파룬궁수련생 저우상양(周向陽), 리산산(李珊珊) 부부는 텐진 동리구(東麗區) 법원에서 불법 심문을 받았는데 심문 시간이 7 시간이나 됐다. 변호사 네 분이 법정에서 이치 있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그 중 한 변호사의 변론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리산산 씨는 8 년 형기를 받은 남자친구에게 결혼 신청을 해 전 교도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항소해 두 차례 노동교양 판결을 받았고 혼약을 굳게 지키면서 7 년을 기다렸습니다.”

“저우상양은 당시 전국 제 1 기 공사비산출 전문 기술자 60 명 중의 한 사람인데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당시 직장에는 그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도 아 파트 세 채를 샀습니다. 그는 노동교양 판결을 받은 뒤 또 억울하게 9 년형을 받았지만 신앙을 견지했습니다. 그는 쇠고리 고문(두 손, 두 발을 쇠고리로 조르고 며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의하기 위해 1 년 6 개월 동안 단식해 체중이 40 여 킬로그램밖에 되지 않았고 심박수가 40 회여서 병원에서 몇 번 응급치료 받으면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각기 교도소 내외에서 서로 구출했습니다. 리산산은 ‘7 년의 기다림, 9 년 억울한 옥살이’라는 글을 써 2300 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고 남편 저우상양은 속편 ‘순진(純眞), 순선(純善)이 재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다’라는 글을 써 5300 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아내를 구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신앙을 굳게 지킨 인격적인 매력에 감동된 것이다. 상술한 이 단락이 이들 부부에 대한 감탄이라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파룬궁 단체에 대한 칭찬이다.

“파룬궁은 전해진 이래 특히 불법적으로 탄압 받은 후 진실하게 ‘진선인(眞善忍)’의 이념을 굳게 지키면서 법의 준수를 초월하는 도덕 표준을 보여 주었습니다. 17 년 동안 모욕과 조롱, 억울한 옥살이와 고문 앞에서 그들은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길고도 거대한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진(眞)에 따라 그들은 진상을 말했고, 선(善)

에 따라 박해를 받으면서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며 세인들의 양심을 일깨워 아름다운 미래가 있길 바랐으며, 인(忍)에 따라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개인의 추구하고 소득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이성을 굳게 지켰고 참으면서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었습니다. 17 년 동안 폭력으로 폭력을 억누르지 않았고 원한으로 원한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파룬궁수련생이 박해 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지만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세상을 구하는 정신입니까? 이는 얼마나 자비로운 홍금입니까? 이들이 보여준 경지는 중화 부흥, 도덕성 향상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할 차례가 됐을 때 전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2015 년 11 월 26 일 베이징 창핑구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장홍루(張鴻儒)를 불법 재판했다. 장홍루는 그때 44 살이었고 베이징 성화(盛華)사의 소프트웨어 부품 제조비산출 사업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했다. 그는 지덕을 겸비해 사장의 중시를 받았다. 변호사는 법정 재판 후 인터뷰를 받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사례를 들 수 있습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는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작년에 베이징 파룬궁수련생 장홍루 안건을 대리할 때 일입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권했습니다. ‘당신은 마흔 (2 면에 계속)

뉴욕 파룬궁수련생들 비바람 속에서 대행진 개최, 화인 감동



파룬궁수련생 대행진대오는 브루클린 제 8 번가에서 행진하고있다, 장면은 장관이고 인심을 진감했다

[밍후이왕] 2017 년 2 월 12 일, 약 1 천 명에 달하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뉴욕에서 세 번째로 큰 화교사회 브루클린 제 8 번가에서 성대한 대행진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비바람 속에 가끔 우박도 내렸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약속대로 참가했고 성대한 대행진대열은 여러 갈래 길 입구를 경유했는데 장엄하고 장관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대행진 대열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고 사람들은 비바람을 잊고 잇달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대행진을 구경하던 한 여성은 눈물흘릴 지경으로 기자에게 말했다. “매우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한 시민은 취재 카메라를 마주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며 높은 소리로 ‘파룬따 파하오(法輪大法好)’를 외쳤고 어떤 시민은 매우 감탄하며 말했다. “비바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파룬궁은 정말로 좋습니다.” ◇



엔 벤 박해소식

지린성 통화시 엔수팡(闫淑芳)등 파룬궁수련생들이 당한 박해 근황

지린성 통화시 파룬궁수련생 엔수팡(闫淑芳), 장쉐잉(张学英), 저우슈런(周秀莲), 장카이(蒋凯), 양양(杨阳)(보석으로 이미 집으로 돌아갔음)을 포함한 자료는 2017 년 1 월 12 일 엔벤 안투현 법원으로 넘어갔다. 현재 엔수팡, 장쉐잉, 저우슈런은 여전히 불법으로 엔지시 구치소에 감금됐고, 장카이는 불법으로 왕칭현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양양은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1 면의 계속) 몇 살인데 11 년 형기를 판결 받은 데다 아직 가정도 이루지 못해 당신의 70 이 넘는 어머니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당신이 수련하지 않는다면 당신 어머니를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장홍루는 진술했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판중옌(範仲淹)의 천하의 근심을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이후에 즐긴다는 말을 아주 숭상합니다. 신앙을 위해 저는 원망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변호할 차례가 됐을 때 전 갑자기 울컥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대법제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들이 그렇게 높은 사상 경지에 도달했으리라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장홍루는 아주 평온했고 말 속에 분노가 없었으며 아주 평온했고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안건이 저에게 가장 감동 깊었습니다.”

박해 초기 많은 변호사도 여러 사람과 마찬가지로 장쩌민 강패집단의 거짓 말에 속아있었다. 파룬궁수련생의 안건을 대리하면서 변호사는 파룬따파의 진상을 알게 된 소중한 기원이 있게 됐다. 관련 법률 증거를 깊이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박해가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 파룬궁수련생과의 접촉과 대화를 거쳐 그들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파룬궁 서적과 진상 자료를 통해 그들은 파룬궁이 창도한 ‘진·선·인(真、善、忍)’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했다.

한 변호사가 말했다. “수천만의 선량한 국민이 ‘진·선·인(真、善、忍)’ 신앙을 한 이유로 박해 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 법치시대에 법률을 이용해 죄를 짓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파룬궁을 위해 변론하는 것은 법률의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고 ‘진·선·인(真、善、忍)’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며 법치를 실현하고 인간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



덕행과 지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기 마련이다

[밍후이왕] “덕행과 지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것은 ‘주자가훈(朱子家訓)’에서 온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지위에 합당한 덕행이 없다면 틀림없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덕행은 집터와 같고, 명예와 권리 그리고 재산은 집과 같다,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큰 건물을 세운다면 위험롭지 않겠는가. 건물이 기울거나 뒤틀리거나 흔들려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반이 얇고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덕행이 지위와 걸맞지 않을 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어떤 유명인사는 명성이 자자하다가 후에는 평판이 나빠지고, 어떤 빈민은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됐다가 곧바로 중병에 걸려 재물도 잃고 사람도 잃었으며, 어떤 공무원은 직위가 승승장구하다가 몇 년 후에는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한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안겨줬던 명예, 재물, 권세의 행복들이 왜 하루아침에 재난으로 변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사람의 덕행이 낮은데 지위가 높으면, 다시 말해서 덕행과 지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마치 높은 나무다리를 밟고 가다가 벼랑 끝에 다다른 것처럼 위험한 것이다.

역대 왕조의 관리 중에는 품행이 방종하여 선량한 사람을 속이고 억눌러서 신세를 망친 관리들이 많다. 당나라 신하 내준(來俊)이란 자는 무고(誣告)로 출세했던 사람이다. 그는 충신에게 죄상을 날조해서 고문혹형을 가하며 모함한 공으로 승진했지만, 후일 그 역시 악인에게 고발당해 참형을 당한 후 시신의 눈알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파열시키는 혹형을 당했다. 악인은 악인에게 당하는 법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여전히 옛사람들의 잘못된 전철을 밟고 있으니 말이다. 인류는 오직 비극과 오류 속에서만 해매는 것 같다. 왕조가 바

뀌고 인물 또한 바뀌었지만, 사건의 애기는 언제나 같음을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 단체를 박해하기 시작한 이래 어떤 공무원은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바짝 따르며 파룬궁박해에 적극 참여 하면서 그로 인해 중용되고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랐다. 저우융강, 보시라이, 리동성, 저우번순 그들은 장쩌민의 박해정책의 핵심적인 앞잡이로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확실히 빠른 승진을 했지만, 근래 그들은 하나둘씩 연이어 낙마했다. 그들은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한 편으로는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일삼았다. 그들은 비록 한때는 권세를 떨쳤지만 품성이 야비하고 행위가 사악했기 때문에 결국 신세를 망치고 만년토록 악명을 남기게 되었다.

고위직에서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자는 낙마 당하고, 중간간부층으로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자는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사건은 이미 중국에서는 무슨 뉴스거리가 아니라 늘 흔히 있는 일이다. 허베이성 탕산시 차오페이덴구 공안국 부국장 리푸귀(李福國)는 2013년 부국장으로 발탁됐지만, 그는 2016년 5월 22일 약관인 47세의 나이로 백혈병으로 사망했는데, 병을 발견한 지 겨우 2개월 만에 죽었다. 그는 2006년 국보대대장이 되면서부터 언제나 파룬궁 박해에는 적극 참여했다. 그가 부국장으로 발탁됐을 때 파룬궁수련생 리언잉을 스자좡 노동교양소에 감금시켰는데, 리언잉이 고문박해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병보석으로 풀어줬지만, 13일 만에 한을 품은 채 사망했다. 또 리푸귀는 2012년 2월 25일 이른 새벽 수하들을 대동하고 오토바이를 수리하겠다고 숙여 문을 열게 한 후,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는 파룬궁수련생 정상성(鄭祥星)을 납치하고 가택수색을 한 후, 10년형을 받게 하여 감옥에 수감시켰는데, 잔혹한 고문학대로 두개골 골절상과 내출혈로 두 눈이 실명된 채 정신이 온전치 못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스스로 혼자서는 활동조차 할 수 없

게 만들었다. 리푸귀는 흉악하고 악독하며, 야비한 냉혈인간의 면목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러므로 그의 그런 품성은 그에게 합당한 위치를 정해 주었던 것이다. 선량한 사람을 박해한 사람은 복이 없고 장수하지 못하는 법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그들은 다만 정책을 집행했을 뿐이다. 그건 그들의 직책이다.” 옛 사람은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칼로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런 공무원이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어떤 파룬궁수련생은 산 채로 장기적출당하고, 어떤 수련생은 고문에 시달리며 구타를 당해 죽고, 어떤 수련생은 고문으로 정신이상이가 되고, 어떤 수련생은 신체가 불구로 됐는데, 그것들이 단지 명령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살인한 것과 무슨 다른 점이 있는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는 매 참여자 모두가 누구에게 책임을 밀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크고 넓은 하늘의 정의의 그물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천리, 도덕, 법률로 볼 때, 살인하면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되는데 그건 모두 응보의 윤회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덕행이 지위와 일치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그런 숙명적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건 아주 간단하다.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옛 사람이 말했다. “덕이 있으면 얻는 것이 있다.”, “덕을 쌓으면 복이 들어온다.”, “후덕하면 재물이 들어온다.”, “덕망이 높으면 대가가 있다.” “선을 행한 자의 집은 복을 받을 때가 있다.”, “도덕을 쌓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

사람의 선은 복의 원천이다. 선을 행하고 덕을 부지런히 쌓으면 복은 자연히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덕행이 풍부하고 오직 바르게 행해야만, 일어설 수 있고, 재물과 지위를 실을 수 있는 것이다.

점골한의사가 환자에게 ‘대법이 좋다’고 외우게 해서 복을 받게 하다

[밍후이왕] 나는 조상 대대로 이어 온 점골한의사인데, 48 세 되던 해에 큰 병에 걸려 죽을뻔한 적이 있다. 가족들이 내 운명을 점쳐본 바에 의하면, “나의 명은 48 세까지이나, 만약 사부를 만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48 세에 생을 마감할 것이다.”라고 했다. 과연 내 명전에 대법사부님께서 사람을 제도하러 오셨으므로, 나는 운 좋게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게 되었다. 내가 처음 제1조 공법인 ‘포잔천서우파(佛展千手法)’의 첫 동작인 ‘미러선야오(彌勒伸腰)’를 하면서 양팔을 위로 쪽 뻗을 때 몸에서 ‘우지끈 우지끈’ 소리가 났다. 단번에 다년간 나를 괴롭혔던 각종 질병들이 모두 없어졌으며, 특히 고통을 주었던 오십견이 즉시 사라졌다. 나는 자비로우신 대법사부님의 제도로 대법수련을 하면서, 대법의 신기함을 실증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대법수련을 착실하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전기톱에 손을 다친 환자가 기연을 만나다

1999 년 7 월 어느 날 나에게 한 젊은 여성환자가 왔다. 그녀는 손을 전기톱에 다쳐 뼈가 들어날 정도로 심하게 잘려나갔다. 나는 부서진 뼈를 모두 맞추어 놓고 환자에게 신신 당부했다. “절대 진통제를 먹지마세요. 참기 힘들면 곧 나를 찾아오세요. 밤중이라도 나를 찾아오면 당신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도록 합시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4 일 후 그녀가 다시 왔는데, 상처부위의 살점이 모두 썩어 병실 안이 온통 살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상처를 처치하면서 물었다. “내 느낌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몇 십 년이 되도록 시어머니가 모든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수중에는 한 푼의 돈도 없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친정집에 가지 못했어요. 남편도 나에게서는 조금도 관

심을 갖지 않아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서 심장이 쿵쿵 뛰어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대법수련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면서 “대법 책 ‘전법륜(轉法輪)’에 ‘업력의 전화’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해주고 당신과 시어머니 사이에는 인연관계가 있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전세에 시어머니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갚게 되는 거죠. 그러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 방금 이어 놓은 손가락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감각이 있느냐고 물으니, “조금 아릿하다.”고 했다. 나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대법과 연분이 있네요. 만일 대법과 연분이 없었다면 전기톱에 잘린 손가락이 이렇게 빨리 이어질 수가 없어요. 진통제를 먹지 말고 그랬는데도 듣지 않고, 하루 저녁에 20 알씩이나 먹고, 또 나흘이나 지나서 찾아왔는데, 일반 사람이었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의 사부님께 감사드려야 해요!”라고 말했다.

후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녀가 시어머니와 함께 파룬궁연공장소를 찾아가다가 소를 방목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파룬궁연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지만, 그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도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해서, 셋이 함께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붉은 불덩어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어 무난히 파룬궁을 수련하는 대법제자의 집을 찾아갈 수가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대법을 수련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변해 며느리를 잘 대해줄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권도 모두 며느리에게 이양했으며, 남편도 관심을 갖고 잘 대해주게 되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에서 말씀하신대로 “불광이 널리 비치니, 예의가 원만하고도 밝도다(佛光普照, 禮義圓明).”가 되었다. 그들 가족은 모두 자비 속에서 매우 행복하게 수련하며 살아간다.

‘파룬따파 하오’를 외우고 종양이 없

어지다

한 젊은이가 손뼈세포에 종양이 생겨 치료받으러 왔다. 그는 여러 병원과 의원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모두 손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환자가, 나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성심으로 ‘파룬따파 하오! 쩌싼런 하오! 사부님 안녕하세요!’를 외우라”고 알려주며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는 우리 치료실에서 3 번 외운 후 돌아갔고, 4 일 후 약을 타러 왔을 때 흑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선원 CD 시청 후, 18 년 동안 불임이던 부부가 임신하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 부부는 결혼한 지 18 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나무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정관이 끊어졌고, 아내는 양쪽 난관이 모두 막혀 있어서 부부가 모두 불임상태라 아기를 임신할 수가 없었다. 그들 부부는 결혼 19 년이 되는 어느 날 동창 집으로 놀러가 선원 CD 를 시청하게 되었는데, 매우 좋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 시디를 시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처음에는 뱃속에 무슨 종양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말했다. “아주 명백하게 임신인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부는 믿지 않았다. 자신들은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불임인 며느리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외도했다.”며 아들을 야단쳤다.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꼭 시어머니를 닮았으므로,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다. 그들은 모두 대법의 신기함을 알게 된 것이다!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큰절을 올립니다! ◇

문 / 헤이룽장 파룬궁수련생